

4.30문화제 기획안(草案)

발신 : 4.30준비위 문화국

수신 : 4.30준비위 문화국 *명사*

내용 :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덧붙임

0. 문화제를 준비하며

4.30문화제는 4.30까지의 투쟁흐름을 총화하고 다음날의 투쟁결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제라 하더라도 반집회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예자체가 도구로서만 사고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것은 문화제에 참가한 각 대학문예패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제의 흐름을 차단하는 '발언'이나 문화제 자체의 기조와 연관성을 지니지 못하는 제요소의 무분별한 제 요소의 결합은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준비 및 제작기간의 짧음과 장소/시간의 유동성 및 참가단의 결합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각 대학 참가단 모두가 문화제에 결합할 수는 없으며, 상반기 투쟁의 흐름속에서 반드시 문화제에 결합해야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1부를 구성하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지구별로 문화제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지구는 동, 서, 남, 북, 경기, 인천으로 나누며, 지구단위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별로 참여하는 것도 고민해 봅니다.

2부에 참가하는 각 대학 문예패는 참가를 최대한 보장하며, 이를 통해 문예운동에 힘을 실어주도록 합니다.

1. 기획의도

약: 4년만

4년만의 지하철 총파업을 지지한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4년만에 다시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정부통계로만 25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길거리는 노숙자로 넘쳐나는데 정부의 경제희생의 비책은 여전히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다. 지난 수천년간 이 땅을 일구고, 생산을 담당하고, 역사를 수레바퀴를 밀어왔던 노동자들이 그러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빼앗긴 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대학사회, 그 암담함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 공공의 권리는 어느새 모두 파괴되었다. 국가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는 대학의 위계서열화 속에서, 학문의 위계서열화 속에서, 교육의 상품화 속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16년의 정규교육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최소한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그 노동권을 박탈 당한 우리의 실업자들, 이것이 1999년, 새천년을 앞둔 한국사회의 대확현실이다.

투쟁하는 새천년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인간다운 삶을 예비하는 천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본의 질서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해방과 역사의 진보를 보장하는 천년으로 만들 것이다.

새천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 투/쟁/한/다.

2. 구성

총 3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 (1부 70)

관객 뒤에서부터 세줄로 나뉘어 풍물패가 무대 중앙으로 들어온다. (동·박)

길놀이 뒤 무대 암전

영상 - 김대중 정권 1년의 암울한 한국사회

사회자 - 각 대학 문예패 순서대로 진행

1부 연두공연 영상 Tape 만물대

2부 (본판) : 사회자 1인 (1)

■ 1막 기획 초안

풍물	풍물공연 / 외북	조명=풍물패를 따라 이동	풍물패	10분
영상	풍물패가 무대뒷편으로 사라질 무렵 상영		멘트자	7분
극	탄압하는 장면	음향 준비	상황극패, 멘트자	7분
마임	힘찬 투쟁을 나타내는 몸짓	조명=움직이는 대오를 따라 붉은색 조명을 많이 쏘	마임패	5분
노래	맞서 싸운다는 의지를 보여줌(노가바)	조명=노래가 흐름에 따라 더욱더 강렬한 느낌의 조명	노래패	7분

준비위원장 인사

전문노래패1.

● 극 설명

폐지가면을 쓴 대학당국과 정권, 그리고 기업주들이 pc천을 들고 동그랗게 서 있고, 그 중심에 청년학생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다. 조명은 폐지들을 비추고 폐지들은 천천히 흘러나오는 멘트(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포장하자는 내용,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적으로 보여줌)와 함께 서서히 움직인다. 폐지들은 pc천으로 학생들을 조이며(학생들은 괴로워하는 몸짓을 해야

함) 약간씩 빨라지는 음향과 함께 신나게 뛰어다니다 그들을 함께 묶는다. 처절한 음향과 함께 조명은 그 중심에 묶여진 학생들을 비춘다. 학생들의 멘트(고용실업에 대한 내용)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은 묶여진 pc천을 조금씩 풀고 힘찬 투쟁의 멘트와 함께 천을 찢고 절규하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낸다.(이때, 돼지들은 놀라서 나동그래진다.)

■2막 기획 초안

주 제	형 식	시 간	내 용	소 품	섭 외
민생권 압	영상과 풍물 연대발언 섭외공연	10분 10분 20분	민생권 압살 내용과 총파업 왜곡 보도내용 지하철 혹은 공공연맹 <i>바람이 부리지</i>	영상물	풍물패 소리물결/ 두더지
민중의 삶	멘트 마임 (노동의 새 벽) <i>노동의 새 벽</i>	2분	어두운 상태에서 마임이 전개되 고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에 대한 애환을 멘트로 표현	멘트대본	나레이터 마임패
정권의 질	가면극 노래(노가바)	5분	정권이 왜곡보도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막으려는 본질을 폭로	가면	노래패 배우
총파업투쟁	연설 노래 마임 군무 멘트	15분	총파업에 돌입하여 침탈하는 과 정을 긴장감 있게 표현 (총파업의 정당성과 정권의 폭력 적인 침탈에 대한 규탄) 선언1(노래) 바리케이트(군무) 싸이렌 소리와 아버지 외침 우리는 누구인가(마임)	PVC로 만든 파이 멘트 대본 노래선곡 경찰차 싸이렌 소 리 효과음	연설자 노래패 마임패 군무패 나레이터

■ 3막 기획 초안

노동농민주제

주 제	형 식	시 간	내 용	소 품	섭 의
우리들의 힘찬 투쟁	북춤	5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힘찬 투쟁의 북춤	북	풍물패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	노래	10분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라는 노래를 통해 우리의 투쟁은 역사속에서 꼭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을 담음.	악기	노래패
	연설	1분 30초	각 단위 대표자 발언		
세상을 바꾸자	마임	4분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연대하여 이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내용의 몸짓		마임패

3부 대동놀이

3. 제작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12	13	14	15	16	17
		문화국 결성		문화국 1차회의	문화국 2차회의	대표자 회의
18	19	20	21	22	23	24
	문화국 3차회의 기획안 초안 완성 대학주체 연석회의 문화주체 연석회의	참가대학 1차 확정 출연진 1차 확정 군무팀 모임 대동놀이판준비 모임	군무,대본, 멘트 완성	극패, 군무 연습 시작	참가대학 최종 확정 출연진 최종 확정	기획안 최종 확정 사회자 대본 완성
25	26	27	28	29	30	
중간 리허설		리플렛 완성		총 리허설 3시 성대	4.30 투쟁대회, 문화제	

제작팀장
대동농민주제
대동농민주제

11월과 12월 2막

연세플랜 바르

강현대
김영수

7막

▲사회자 4인(1부-남/여, 2,3부-1명)

1부는 새내기 한마당으로 재미있고 탄력있는 사회자가 필요하다.

2,3부는 본관과 대동놀이이므로 사회자의 역할보다는 출연진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무대와 관객을 가능한한 분리시키지 않는다.

▲출연진

- 각 대학 참가단 (미정)

- 대학 문예패(미정)

- 풍물

- 노래

- 율동

- 영상

- 전문 출연진 / 노조 문예패

- 꽃다지

- 일터

- 최도은

- 소리물결/ 두더지